

# 제 1,2차 국공합작기 미국과 소련의 대중 정책 연구\*

-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의 관점에서 -

박 홍 서\*\*

## 目 次

- I. 서론
- II. 제 1차 국공합작기 미소 양국의 대중 정책
- III. 제 2차 국공합작기 미소 양국의 대중 정책
- IV. 결론

## I. 서론

1911년 발발한 신해혁명으로 수천년간 지속되어온 중화패러다임이 붕괴됨으로써 중국은 본격적인 혁명기에 접어들게 되었다.<sup>1)</sup> 혁명시기 중국내 제 정치세력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상호간 치열한 연합과 분열을 전개해 나갔다. 1, 2차 국공합작은 바로 이러한 과정속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이었다. 1차 국공합작이 균벌 제압을 목적으로 형성된 국공 양당간의 통일전선이라면, 2차 국공합작은 항일전쟁이라는 공동된 정치목표를 위해 성립되었다.

그동안 국공합작에 관한 상당수 연구는 국공합작을 단순히 국공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속에서 파악하거나, 대외적 설명 역시 코민테른의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국공합작기 중국을 둘러싼 강대국간 세력관계(체제수준)를 간과하고 국공 양당 및 코민테른이라는 행위자(단위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환원주의적 설명의 문제에 직면한다. 즉, 국공합작을 설명하기 위해 단위수준의 다양한 변인들을 도입함으로써 설명의 간결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 저의 석박사 과정을 지도해 주신 최관장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강사

1) 과학철학의 연구프로그램 개념을 통해 전통적 중화질서의 붕괴과정을 분석한 글은 박홍서, 「아편전쟁이후 중화프로그래의 위기 및 그 문제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제 33집(2005), 444-468쪽 참조.

2) 관련문헌으로는 秦文志, 「關於兩次國共合作的比較分析」, 『西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學版) 1997年 第2期, 94-97쪽; 賈濤, 「試論兩次國共合作的形成與我黨策略的演變」, 『黨史縱橫』 1996年 第8期, 17-20쪽; 姚洪亮, 「共產國際的東方戰略與第一次國共合作」, 『首都師範大學學報』 1994年 第三期, 70-77쪽; 肖桂, 「論共產國際對第一次國共合作建立的貢獻」, 『黨史研究教學』, 2005年 第1期, 11-16쪽 참조.

3) 환원주의적 설명에 대한 비판은 Kenneth N. Waltz,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

이에 본 논문은 1,2차 국공합작의 형성 및 전개과정에 있어 중국을 둘러싼 강대국간 세력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sup>4)</sup>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미국과 소련의 현실주의적 대중전략을 1, 2차 국공합작의 국제정치적 동인으로 가정한다. 미국이 1차 대전이후 국제정치의 패권국가로 등장해 대중 문호개방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또한 볼셰비키 소련은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지도세력이었다는 점에서 미소 양국은 기타 강대국과 차별적인 대중 정책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미소 양국의 현실주의적 대중정책을 통해 1, 2차 국공합작의 동인 및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제 1차 국공합작기 미소 양국의 대중전략

### 1. 볼셰비키 소련의 위기 및 대중접근

1917년 10월,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1차 대전에 참전중이었으나 혁명정부 수립 직후인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Brest-Litovsk) 조약을 통해 독일과 단독 강화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정책은 1차 대전을 선진 자본주의 제국간의 필연적 전쟁으로 분석한 레닌의 혁명적 관점과 동시에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신생 소비에트 정권을 방어하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의해 추진되었다.<sup>5)</sup>

그러나 연합국들에게 소련의 대독 단독 강화는 연합국의 동부전선이 와해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배신행위로 간주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생 소비에트 정권이 반자본주의와 반제국주의 노선을 명확히 하고 주변국가의 반정부 혁명세력을 지지하기 시작하자, 강대국들은 소련내 반혁명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신생 소비에트 정권의 붕괴를 기도하였다.<sup>6)</sup>

소련지도부에게 강대국들의 대소 포위정책은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선진자본

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60-67쪽 참조. 월츠에 따르면, 단위수준의 설명은 다양한 피상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변인의 "무한확장(infinite proliferation)"에 빠질 수밖에 없다. Waltz, 위의 책, 65쪽.

4) 이와 같다면, 중국의 국공합작은 소위 "전도된 제2이미지(reversed second image)"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일국의 정치구조(regime type) 및 정치세력들의 연합양상(coalition pattern)은 국제 정치의 세력관계(distribution of power)의 결과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볼셰비키혁명 등은 모두 중국의 국공합작과 유사하게 국제정치적 혼란이 국내정치체계에 과부하(overtax)를 가해 초래되었던 결과라 볼 수 있다. Peter Gourevitch,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4.(Autumn, 1978), 899-900쪽 참조.

5) 1차 대전의 원인을 자본주의 제국주의간 모순으로 분석한 문헌은 V.I. 레닌, 『제국주의론』(서울: 백산서당, 1988) 참조.

6) 그 대표적인 예가 1918년 8월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연합군의 시베리아 출병이다. 이에 대해서는 성황용, 『동양 근대의교사』(서울: 명지사, 1992), 379-384쪽 참조.

주의 국가내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1923년 독일을 끝으로 연이어 실패하게 되자 신생 소비에트 정권의 국제적 고립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에 소련지도부는 소위 동방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위기국면을 모면하려 하였다. 레닌은 1920년 7월 코민테른 제 2차 회의에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강령”을 발표하고 피압박 민족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일부이며, 따라서 민족 자산계급과 연합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수행해야 함을 공표하였던 것이다.<sup>7)</sup>

사실, 소련의 동방전략은 그 이론적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세력균형을 이루려는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었다. 즉, 필요한 것은 “혁명”이 아니라 그 혁명을 수행할 소련의 “생존”이었기 때문에 볼셰비키 정권의 대외정책은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에 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8)</sup> 특히, 대내적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의 시행으로 스탈린을 정점으로 한 관료계급이 정권의 중심축으로 등장하면서 소련의 현실주의적 대외행태는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sup>9)</sup>

이러한 맥락에서 소련의 대중접근은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에게 중국은 그 대내적 이권뿐만 아니라 기타 열강과의 세력균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 후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요동점령을 무력화시키고 여순 및 대련항을 조차했으며, 의화단 사건시기 만주지역을 점거했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1904년 영미 양국의 지원을 얻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대중국 영향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소련의 대중전략도 이러한 제정 러시아의 대중국 정책과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정 러시아의 대중 정책이 기타 제국주의 세력과 유사한 방식들(조차, 이권장악 및 점령)로 수행되었다면, 사회주의 소련의 대중정책은 중국내 혁명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중국을 이용해 경쟁국과의 세력균형을 도모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했던 것이다.

우선, 소련은 1919년 7월 25일 카라한선언(Karakhan Declaration)을 통해 제정 러시아가 소유하던 모든 대중국 이권의 포기를 공표함으로써 5.4운동으로 결집된 중국 민족주의 세력

- 7) 黃萬求, 「論共產國際促進首次國共合作的實力思想和蘇聯利益中心思想」, 『中共南寧市委黨校黨報』, 2002年, 第2期, 50쪽; 姚洪亮, 「共產國際的東方戰略與第一次國共合作」, 『首都師範大學學報』, 1994年, 第三期, 71쪽.
- 8) 월츠(K. Waltz)에 따르면,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소련은 혁명 직후 그 이념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타국과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즉, 국가의 특성(제2이미지)은 국제구조(제3이미지)에 의해 상쇄되었던 것이다. Kenneth N. Waltz, 앞의 책, 127-28쪽. 마르크스적 관점도 사회주의 국가가 국가간 체제에 편입됨으로써(즉, 민족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질식”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강의』 (서울: 그린비, 2006), 32-35쪽.
- 9) Harold R. Isaacs, *The Tragedy of the Chinese Revolu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1), 40-41쪽.
- 10) 삼국간섭 이후 러일전쟁까지 러시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오기평, 『세계외교사』(서울: 박영사, 1992), 228-36, 261-74쪽 참조.

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이미 1920년 초부터 중국내의 주요 정치세력들과 연합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북경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직계(直系) 군벌 오패부(吳佩孚)와 광동의 군벌 진형명(陳炯明) 등이 그 주요대상이었다. 또한 소련은 남방에서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손문(孫文)과도 협상을 진행시켰으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정치세력이었던 국민당은 최초 소련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북경정부와의 교섭이 동중국 철도문제 및 외몽고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진형명이 반혁명 쿠데타를 감행하자 결국 소련은 1923년 1월 손문-오패 선언을 통해 국민당과의 연합을 공표하게 되었다.<sup>11)</sup> 동시에 소련은 북경정부와도 협상을 지속해 1924년 5월 31일 중소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고, 9월 20일에는 봉천군벌인 장작림(張作霖)과도 동중국철도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매우 현실적인 대중국 정책을 견지하였다.<sup>12)</sup>

사실, 이와 같이 소련이 중국내 어떠한 세력과도 연합하려 했던 사실은 소련의 국가안보라는 목표가 사회주의 이념의 전파라는 목표보다 상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과정에서 1921년 7월 1일 코민테른의 지도하에 창설된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 비해 소련으로부터 배척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최초 국민당으로의 당내합작을 반대하자 코민테른은 1923년 1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관계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해 국민당에 대한 공산당의 확고한 지지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1923년 6월 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민당으로의 당내합작을 부득이 수용하였으며, 이에 국민당이 1924년 1월 광주에서 1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 “연이연공부조농공(聯俄聯共扶助農工)”을 공표함으로써 제 1차 국공합작이 시작되었다.<sup>13)</sup>

한편, 1924년 레닌 사후 판료조직을 장악한 스탈린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국민당에 대한 소련의 접근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당시 스탈린(Joseph Stalin)은 정적이었던 트로츠키(Leon Trotsky)와 중국의 혁명방식을 둘러싸고 심각한 이념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트로츠키는 세계적 혁명완수를 위해서는 국제 프롤레타리아들간의 연대가 우선이며 따라서 부르조아 정치세력인 국민당과의 연합을 반대하였으나, 스탈린은 철저한 일국사회주의의 관점에서 국민당과의 연합을 강조했던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1차 국공합작기 전반에 걸쳐 소련은 국민당과의 연합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이와 같은 태도는 1925년 3월 손문사후 장개석(蔣介石)의 반공적 태도가 노

11) Isaacs, 앞의 책, 61-63쪽; 肖姓, 앞의 글, 12-13쪽.

12) 김경창, 『동양외교사』(서울: 집문당, 1982), 728-31쪽.

13) 肖姓, 앞의 글, 13-14쪽; 서진영, 『중국혁명사』(서울: 한울, 2002), 122-123쪽.

14) 일국사회주의론에 따르면, 세계혁명의 필요조건은 우선 소련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확고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위해 타국의 부르조아 세력과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鮑曉燕, 『西南交通大學學報』, 2001년9월 第2卷 第3期, 52쪽; Isaacs, 앞의 책, 41-42/49쪽. 이에 반해 트로츠키는 선진 국가의 사회주의 혁명이 뒤따르지 않으면(즉, 소련이 고립된다면) 소비에트 체제는 자본주의로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레온 트로츠키 씀, 김성훈 옮김, 『배반당한 혁명』(서울: 갈무리, 1995), 297쪽.

골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26년 3월 발생한 중산함(中山艦) 사건과 5월 국민당 2차 2중 전회에서 통과된 당무정리안 등은 모두 장개석이 당내에서 공산 세력을 제거하려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926년 11월 개최된 코민테른 7차 대표 회의에서 장개석을 여전히 좌파 혹은 중간파로 간주 그와의 연합을 공산당에 지시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장개석이 1927년 4월 12일 상해에서 반공 쿠데타를 감행 국공합작을 와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왕정위(王精微)를 중심으로 하는 무한의 국민당 좌파세력과의 합작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sup>15)</sup> 그러나, 왕정위가 7월 15일 장개석의 남경 정부와의 통합을 선언함으로써 소련의 의도는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중국공산당에게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었는데, 소련이 중국혁명을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이용하려 했던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2.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 미국의 대중 문호개방 정책

소련이 1차 국공합작의 성립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면, 미국은 워싱턴 회의를 통해 당시 중국을 둘러싼 열강간의 세력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는 측면에서 국공합작의 대외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대중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1899년 헤이(John M. Hay) 국무장관이 발표한 문호개방 정책은 열강간 대중국 기회균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는데, 기타 열강이 이미 상당한 대중 이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이었던 것이다.<sup>16)</sup> 특히, 1차 대전 종결후 영국을 대신해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자국의 전통적 문호개방정책을 국제간 협약으로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1921년 11월 12일 개막돼 이듬해 2월 6일 종결된 워싱턴 회의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국제회의였다. 미국 이외에 중국, 영국, 일본 등 9개국이 참가한 본 회의에서 미국은 영일동맹의 폐기를 관철시키고, 일본 해군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킴과 동시에 중국의 주권 및 영토의 보전과 각국의 기회균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전통적 대중국 문호개방정책을 최종적으로 완결하였던 것이다.<sup>17)</sup>

이와 같이, 미국이 주도한 워싱턴 체제는 1차 대전 이후 대중국 세력 확장을 도모하던 일본을 견제함으로써 대중국 이익을 유지하려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이를 위해 미국은 기타 열강과 같은 노골적인 대중 이권경쟁 방식이나 당시 소련이 추구하던 급진적 혁명 방식을

15) 국공합작을 유지시키기 위한 소련의 태도에 대해서는 雲峰, 「共產國際對一次國共合作指導失誤芻議」, 『毛澤東思想研究』 1999增刊, 175-77쪽; 黃萬求, 앞의 글, 51쪽; 서진영, 앞의 책, 128-45쪽 참조.

16)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에 대해서는 김경창, 앞의 책, 620-24쪽 참조.

17) 워싱턴회의에 대해서는 김경창, 위의 책, 692-711쪽 참조.

모두 지양하고, 통일된 중국을 미국식의 자유무역 국가로 변화시키려는 점진적인 대중국 정책을 채택하였다.<sup>18)</sup>

한편, 미국의 현실주의적 대중정책은 국공합작 이후 중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보다 세밀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내 정치세력들간의 부침은 미국에게는 주요한 관심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애초 국민당 및 공산당을 포함한 중국내 민족주의 혁명세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워싱턴회의에서 광동정부의 특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미국으로서는 북경정부에 비해 그 세력이 미약했던 국민혁명세력을 중국의 대표자로 간주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혁명세력과 소련의 연대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즉, 국민당과 소련은 모두 워싱턴 회의를 중국을 공동 보호국화 하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시도로 규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이다.<sup>19)</sup>

그러나, 1926년을 전후로 중국혁명파의 세력이 증대되고, 특별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미국은 비로소 국민혁명세력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926년 9월 북경주재 미국공사인 맥머레이(John V.A. MacMurray)는 외국공사로서는 최초로 광주를 방문해 국민정부 인사들과 연쇄회동을 가졌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국민혁명세력의 강경한 배외적 행태에도 기타 열강과는 달리 보다 유화적인 대응을 하였다. 9월 국민정부가 자주적 관세징수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자 미국은 영국, 일본의 강경 움직임과는 달리 온건한 문제해결을 주장하였고, 같은 해 11월 혁명군이 남창을 점령하고 상해입경이 임박했을 때도 무력을 통해 상해조계지를 보호하려던 열강의 움직임에 반대했던 것이다. 결국, 1927년 1월 27일 미 국무장관 켈로그(Frank B. Kellogg)는 대중 불평등 조약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중국정부와도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공포함으로써 광동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기에 이르렀다.<sup>20)</sup>

사실, 국민혁명세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변화는 당시 중국을 둘러싼 열강들과의 경쟁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즉,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국민혁명세력에 기타 열강보다 먼저 관계개선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중국에서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국공합작을 통해 국민혁명세력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소련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될 수도 있다. 즉, 미국 역시 제국주의적 행태를 지양하고 중국의 민족혁명을 지지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국민당에 대한 소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sup>21)</sup> 이러한 맥락에서, 1927년 4월 12일 장개석이 주도한 상해

18) 王立新, 『華盛頓體制與中國國民革命: 二十年代中美關係新探』, 『歷史研究』 2001年 第2期, 57-58쪽.

19) 김경장, 앞의 책, 727쪽; 王立新, 위의 글, 62쪽.

20) 羅志田, 『北伐前期美國政府對中國革命的認知與對策』, 『中國社會科學』 1997年 第6期, 174-78쪽; 王立新, 위의 글, 65-67쪽.

21) 羅志田, 위의 글, 181쪽.

정변으로 소련의 영향력이 배제된 후 국민정부와 미국의 관계개선은 자연스러운 상황전개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22)</sup>

### Ⅲ. 제 2차 국공합작기 미소 양국의 대중전략

#### 1. 일본의 대중 세력확장과 소련의 대중 접근

1917년 볼셰비키 혁명후 열강간 세력관계의 변화가 1차 국공합작을 추동시킨 대외적 변인이 라 한다면, 제 2차 국공합작은 일본의 대중국 영향력 확장이라는 새로운 대외적 상황속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소 양국은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는 공통된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국공합작의 형성 및 전개에 있어 주요한 대외행위자가 되었다.

일본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킴으로써 본격적인 대중국 세력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은 1932년 1월 28일 제 1차 상해사변을 일으키고 3월 1일에는 만주국을 수립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에 친일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대중국 세력확장은 미국이 주도한 워싱턴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의 단독적인 만주침공은 워싱턴 회의를 통해 합의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각국의 기회균등을 파괴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초 일본의 대중국 영향력 확장을 견제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국무장관 스티imson(Henry L. Stimson)이 1932년 1월 7일 향후 중일간에 대중 문화개방 정책을 침해하는 어떠한 조약도 미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스티imson 독트린을 천명하였으나, 실제로 일본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이다.<sup>23)</sup> 미국의 소극적 대외정책은 당시 국제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내의 고립주의적 성향, 대일무역의 중요성, 그리고 유럽 지역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던 상황에 기인하였다. 미국은 급기야 1935년 8월 중립법(Neutrality Act)을 제정해 자국의 분쟁 불개입 정책을 법제화하기도 하였다.<sup>24)</sup>

이에 비해 소련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을 견제하려는 양태를 보였다. 이러한 소련의 행태는 주로 만주지역에 대한 자국의 전통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이미 1904

22) 장개석의 반공쿠데타의 배후에 미국이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그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다수이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은 상해정변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당내 파벌관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장개석이 향후 어떠한 대외정책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관망적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牛大勇, 陳長偉, 『北伐時期列強對華政策研究評介』, 『歷史研究』 2005年 第3期, 158-70쪽 참조.

23) 스티imson 독트린에 대해서는 성황용, 앞의 책, 483쪽 참조.

24) 미국의 중립정책의 원인에 대해서는 徐康明·徐崗, 『中日戰爭初期美國舉棋不定的“中立”政策』, 『曲靖師範學院學報』 第24卷 第4期 2005年7月, 48-50쪽 참조.

년 러일전쟁을 통해 만주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전쟁을 경험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만주침공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스탈린은 중국의 동북지방을 향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sup>25)</sup>

물론, 소련 역시 유럽지역에서 독일을 견제하는데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전면적인 분쟁은 회피하려는 양태를 보였다. 따라서, 소련은 한편으로 대일 유화정책을 수행하고 동시에 1927년 1차 국공합작 붕괴이후 단절된 국민당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 중국을 통한 일본 견제라는 양면적 행태를 보였다. 소련은 1935년 1월 동중국철도를 일본에 매각함으로써 대일 유화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1934년 말부터 국민당과의 연이은 접촉을 통해 향후 대중국 지원을 약속하였던 것이다.<sup>26)</sup> 국민당으로서도 미국이 관망적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소련의 대일 전략적 가치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소 관계개선을 추구하게 되었다.<sup>27)</sup>

한편, 코민테른은 1935년 7월 모스크바에서 7차 대표대회를 개최해 각국 공산당은 향후 민족주의 세력과 반파시스트 통일전선을 구축해야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8.1선언을 기점으로 국민당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실, 모택동은 장개석과의 연합에 최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 즉, 12월 정치국회의에서 모택동은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및 민족자산계급의 4계급 연합을 통한 항일을 주장한 반면 장개석을 위시로 하는 매관세력과의 연합에는 분명한 반대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과 장개석의 협상이 진전되면서 국공합작에 대한 소련의 압력이 점점증하자, 공산당은 결국 1936년 5월 5일 “정전강화와 일치항일(停戰議和一致抗日)”을 발표하고 9월 “뽀장항일(逼將抗日)”을 공포함으로써 장개석 정부와의 연합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sup>28)</sup>

이러한 측면에서 1936년 12월 12일 발생한 서안사건에 대한 소련의 대응은 현실주의적 대중전략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동북군 사령관 장학량이 장개석을 구급, 소위 “안내양외(安內攘外)” 정책을 포기하고 대일 항전에 전력할 것을 요구하자, 소련은 국민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개석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특히, 12월 16일 코민테른의 전보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서안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소련으로서는 대일 견제를 위해 중국내에서 광범위한 정치권력을 소유하던 장개석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유고를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sup>29)</sup>

25) 顧瑩蕙, 「抗日戰爭時期美蘇對華政策與國共關係」, 『東南文化』1995年 第4期, 45쪽.

26) 顧瑩蕙, 위의 글, 46쪽. 그러나 소련은 국민당의 거듭된 군사동맹 체결 요구는 거부함으로써 중일전쟁에 자국이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행태를 보였다. Youli Sun, *China and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1931-1941*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109-111쪽.

27) 장개석의 대소련 관계개선 노력은 Youli Sun, 위의 책, 8-10/ 70-74쪽 참조.

28) 서진영, 앞의 책, 207-216쪽; 胡華, 『中國革命史講義』上冊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80), 395-407쪽.

29) 서안사건의 전개과정 및 소련의 입장은 Youli Sun, 앞의 책, 79-83쪽 참조.



결국, 서안사건이 해결된 후 1937년 2월 10일 개최된 국민당 5기 3중 전회에서 국공합작에 관한 제반사항이 결정됨으로써 제 2차 국공합작은 성립되게 되었다. 1차 국공합작이 장개석의 반공쿠테타로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년만에 소련과 국민정부가 급속도로 관계개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 현실주의적 이해관계를 공유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중일전쟁의 발발과 미소 양국의 대중 정책의 변화

소련이 제 2차 국공합작의 형성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미국은 국공합작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외부 행위자의 역할을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일본의 만주침공으로 자국의 전통적 대중 문호개방 정책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관망적인 대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을 기점으로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되자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중지원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세력확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1937년 10월 5일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격리연설(Quarantine Speech)”을 시초로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을 간접적으로 전염병 환자에 비유해 그의 격리를 주장한 루즈벨트의 연설은 비록 실질적인 대일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전통적 중립정책의 변화를 암시하였던 것이다.<sup>30)</sup> 특히, 미국의 대일견제 움직임은 1938년 11월 3일 일본 수상 고노에(近衛文麿)가 일본, 만주, 그리고 중국의 3자 연합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을 주장한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노에 성명은 중국에 있어서 미국의 기존 이익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세력 확장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12월 이천오백만 달러 상당의 대중 차관을 승인했으며, 1939년 7월 26일에는 일방적으로 미일통상 조약의 폐기를 통고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일견제 조치를 단행하였다.<sup>31)</sup>

반면, 동시기 소련의 대중 정책은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에서 소극적인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련의 대중정책 변화는 급속히 변화하는 유럽의 정황 속에서 자국의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유럽에서 독일의 위협이 가중되자 소련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적인 전쟁수행을 차단하려 하였으며, 급기야 1941년 4월 13일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하는 매우 현실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sup>32)</sup> 그 결과 소련의 대중 원조는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을 기점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련의 대중정책 변화는 장개석 정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다. 장개석은 최초 소련과 일본의 긴장관계를 이용해 일본의 대중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 했으나, 소일간

30) 루즈벨트의 격리연설은 성황용, 앞의 책, 478쪽 참조.

31) 顧瑩蕙, 앞의 글, 47쪽.

32) 鄭德榮·邢華, 「共產國際在兩次國共合作中的作用評析」, 『東北師大學報』1997年 第1期, 17쪽.

중립조약으로 인해 그의 전략적 의도는 좌절되었던 것이다.<sup>33)</sup>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당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적극적 대일 견제 움직임은 장개석 정부에게 소련을 대신할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련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장개석 정부는 공산당과의 협력을 유지할 현실적 이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공합작 역시 붕괴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41년 1월 국민당군이 공산군을 공격한 신사군 사건(皖南事變)은 국공 분열이 현실화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34)</sup>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여전히 안정된 중국을 이용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에 국공합작의 지속을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루즈벨트는 국공간 내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국민당에 대한 대량원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소련 역시 국민당에 반공적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산당에게는 국민당에 협력함으로써 장개석이 반공정책을 추구할 구실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sup>35)</sup> 특히,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침공과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 미소양국이 추축국에 대항한 전략적 연합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내전은 결코 용인될 수 없었다. 비록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1943년 11월 루즈벨트와의 테헤란 회담에서 향후 영미 양국과 함께 대일 공동전선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그 결과 미영소 3국은 1945년 2월 얄타협정을 통해 독일 항복 후 소련의 대일 참전을 합의하였던 것이다.<sup>36)</sup>

사실, 국공 양당으로서도 미국과 소련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공합작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대전이 종결됨으로써 국공합작은 결정적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미소간 대일 공동전선의 존재이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국공합작의 대외적 동인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속에서 1946년 7월 국민당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제 2차 국공합작은 붕괴되고 전면적인 국공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한편, 전후 미소간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소 양국은 여전히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대중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통일된 중국을 이용해 상대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중국을 자국의 우방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국공내전을 중재하려는 시도가 좌절되고, 전세가 공산당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공산 중국을 아시아의 티토 정권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산당과의 관계개선이 지체되면서 1950년 2월 14일 중소간 방위

33) 소일간 중립조약의 체결로 인해 중국 공산당 역시 소련의 입장에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독소간 전쟁 발발 후, 중국 공산당은 대소지원을 준비하면서도 국민당과의 통일전선을 통한 대일 항전에 보다 큰 강조점을 두었던 것이다. 鄭德榮·邢華, 위의 글, 17쪽.

34) 소련의 대중정책 변화에 대한 장개석 정부의 입장과 그 여파는 Youli Sun, 앞의 책, 122-130쪽 참조.

35) 顧瑩蕙, 앞의 글, 48-49쪽.

36) 소련은 참전대가로 외몽고의 현상 유지, 동중국 철도와 남만철도에 대한 이권, 여순 및 대련항에 대한 이권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8월 14일 중소동맹조약에 포함되었다. 성황용, 앞의 책, 512-524쪽 참조.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의 의도는 실패로 종결되었던 것이다.<sup>37)</sup>

#### IV. 결론

중국의 1, 2차 국공합작은 미소 양국을 위시한 주요 강대국간의 세력균형 정치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성공후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의 기치아래 중국 민족주의세력인 국민당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제 1차 국공합작의 실질적 추동자가 되었다. 반면, 최초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았던 미국은 국민당 중심의 중국통일이 가시화되자 국민당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 자국의 대중 이익을 확보하려 하였다. 한편, 제 2차 국공합작은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중 세력확장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 전통적으로 일본과 만주지역을 놓고 경쟁관계를 형성했던 소련은 대일 세력 견제를 위해 국민당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반면 최초 중립정책을 고수하던 미국은 일본의 세력확장이 가시화되자 적극적인 대중 지원 정책을 통해 대중 문호개방 정책을 고수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1, 2차 국공합작은 중국을 이용해 상호간 세력균형을 성취하려는 강대국들의 현실주의적 이해관계속에서 발생되고 전개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소 양국은 모두 중국 내에서 광범위한 정치권력을 확보하고 있던 국민당을 주요한 협상당사자로 간주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침해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1949년 공산당이 국공내전에 승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의미 있는 혁명성 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공산당이 국민당뿐만 아니라 미소 양국의 직간접적인 압력도 극복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신중국 건립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정치적 정당성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김경창, 『동양외교사』, 서울: 집문당, 1982.

프르츠키, L. 썸, 김성훈 옮김, 『배반당한 혁명』, 서울: 갈무리, 1995.

37) 전후 소련 봉쇄를 위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Thomas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103쪽 참조.

- 레닌, V.I., 『제국주의론』, 서울: 백산서당, 1988.
- 박홍서, 「아편전쟁이후 중화프로그램의 위기 및 그 문제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제 33집, 2005.
-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강의』, 서울: 그린비, 2006.
- 서진영, 『중국혁명사』, 서울: 한울, 2002.
- 성황용, 『동양근대외교사』, 서울: 명지사, 1992.
- 오기평, 『세계외교사』, 서울: 박영사, 1992.
- 範曉燕, 「兩次國共合作中工產國際與國民黨關係比較研究」, 『西南交通大學學報』, 2001年9月 第2卷, 第3期.
- 顧瑩蕙, 「抗日戰爭時期美蘇對華政策與國共關係」, 『東南文化』, 1995年 第4期.
- 胡華, 『中國革命史講義』上冊,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80.
- 黃萬求, 「論共產國際促進首次國共合作的實力思想和蘇聯利益中心思想」, 『中共南寧市委黨校黨報』, 2002年 第2期.
- 賈濤, 「試論兩次國共合作的形成與我黨策略的演變」, 『黨史縱橫』, 1996年 第8期.
- 羅志田, 「北伐前期美國政府對中國革命的認知與對策」, 『中國社會科學』, 1997年 第6期.
- 牛大勇, 陳長偉, 「北伐時期列強對華政策研究評介」, 『曆史研究』, 2005年 第3期.
- 王立新, 「華盛頓體制與中國國民革命: 二十年代中美關係新探」, 『曆史研究』, 2001年 第2期.
- 肖姓, 「論共產國際對第一次國共合作建立的貢獻」, 『黨史研究教學』, 2005年 第1期.
- 徐康明·徐崗, 「中日戰爭初期美國舉棋不定的“中立”政策」, 『曲靖師範學院學報』, 第24卷 第4期 2005年 7月.
- 姚洪亮, 「共產國際的東方戰略與第一次國共合作」, 『首都師範大學學報』, 1994年 第3期.
- 雲峰, 「共產國際對一次國共合作指導失誤芻議」, 『毛澤東思想研究』, 1999增刊.
- 鄭德榮·邢華, 「共產國際在兩次國共合作中的作用評析」, 『東北師大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97年 第1期.
- 奏文志, 「關於兩次國共合作的比較分析」, 『西南師範大學學報』, 1997年 第2期.
- Christensen, Thomas.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Gourevitch, Peter.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4, Autumn, 1978.
- Isaacs, Harold R. *The Tragedy of the Chinese Revolu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1.

- Sun, Youli. *China and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1931-41*,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6.
- Waltz, Kenneth 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Abstract>**

**The Russo-American Realistic China Policy during the KMT-CCP  
United Fronts**

Park, Hong-seo

The first and second united fronts between the Kuomintang and Communists can be explained by international politics among strong states in general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particular. The first united front was initially propelled by the Soviet's national interest to protect its security by cooperating nationalist forces in China right after the Bolshevik Revolution in 1917. On the other hand, keeping the traditional "Open Door Policy", the United States had sought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KMT as the latter began to consolidate its power position over China. Meanwhile, the second united front appeared as Japan tried to expand its power to China. To contain Japan's expansion, Washington and Moscow altogether tried to take advantage of China as a proxy for them. In this respect, it was natural from the second united front to collapse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ar in August 1945.

Key Word : KMT-CCP United Front, Balance of Power, Open Door Policy, Comintern, Washington System, Sino-Japanese War

투 고 일 : 2006. 10. 30

심 사 일 : 2006. 11. 15 ~ 11. 30

게재확정일 : 2006. 12. 10